

# 최근 국채시장에서 국고채 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## <보도내용>

- 2025.6.2. 문화일보는 「금융사 ‘국고채 입찰 보이콧’ 움직임」 기사에서,
  - “국고채 응찰률이 최근 뚝 떨어졌으며,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를 사들이는 ‘국고채 전문딜러(PD)’ 금융회사들의 담합을 지적하자 PD들이 입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에서 국고채 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  - 금년 국고채 평균 응찰률\*은 274.4%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며, 발행금리(낙찰금리)\*\*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    - \* 국고채 응찰률(%) : ('21)283.0, ('22)274.9, ('23)271.1, ('24)321.1, ('25.1~5)274.4
    - \*\* 국고채 평균 발행금리(%) : ('25.1)2.72, (2)2.69, (3)2.65, (4)2.56, (5)2.47
  - ※ 금일(6.2일) 국고채 2년물 입찰(2.3조원)도 응찰률은 318.5%였으며, 발행금리(2.330%)도 입찰시점 유통금리(2.337%)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
  - 최근 응찰률 하락은 금년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\* 및 이에 대응한 PD의 인수부담 완화조치\*\*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
    - \* 국고채 발행량(조원) : ('20)174.5, ('21)180.5, ('22)168.6, ('23)165.7, ('24)158.4, ('25)207.1
    - \*\* '25.3월부터 PD평가시 실인수 만점비율을 하향 조정(10→8%)
-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고국	책임자	과 장	이근우 (044-215-5130)
	국채과	담당자	사무관	박정상 (parkjeongsang@korea.kr)